

# 젤렌스키 “트럼프 특사 통화…종전회담 단계·형식 합의”

“실질적·건설적인 논의”…8일 런던서 영·프·독 정상 회동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 맨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길고 실질적인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윗코프 특사 등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측과 솔직하게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회담을 위한 다음 단계와 형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과 루스테姆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전후 안보 체제 구축 방안을 놓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흘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4일부터 플로리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팀은 전날 이틀째 회담을 마친 뒤 주말인 6일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러시아가 긴장 완화와 살상 중단 조치를 포함해 장기적 평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줄 준비가 돼 있으나에 달려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윗코프 특사 등과의 통화를 “실질적”,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많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졌다”고 전했다.

그는 “유혈 사태 종식을 보장하고, 러시아의 3번째 침공 위협을 제거하고, 과거 여러 차례 그

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우려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빠르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메로우 서기 등 우크라이나 협상단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화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없기에 아이디어와 제안들에 대해 협상단과 상세히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 방식은 “평화, 안보, 재건을 위한 중요한 모든 것이 작동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8일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빅3’ 정상을 만나 미국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엑 트위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프리드리히 베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마 영국 총리와의 8일 런던 회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보장을 해주려 미국 측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걸린 문제는 유럽 전체의 안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등에 가해진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러시아는 긴장 고조의 방식에 갇혀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러시아가 평화를 이루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예수 탄생지인 요르단강 서안 도시 베들레헴 구유 광장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 불 밝힌 베들레헴 크리스마스트리…가자전쟁 후 처음

### 휴전합의로 2년만 성탄 행사

예수 탄생지인 요르단강 서안 도시 베들레헴에 가자지구 전쟁 이후 처음으로 환하게 빛나는 크리스마스트리가 돌아왔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들레헴 구유 광장(Manger Square)에서는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단됐던 크리스마스 축제가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진 지난 2년여 동안 베들레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공식 행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광장 한가운데 붉은빛과 금빛 장식으로 뒤덮인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졌다. 두 시간에 걸친 행사가 끝날 무렵 트리에 불이 들어오자 환호성이 터졌다.

트리의 노란 불빛은 반짝였고, 흰색 달빛이

구름이 드리운 밤하늘을 비추는 가운데 꽃대기의 붉은 별은 밝게 빛났다. 행사에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아우르는 현지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수천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빛나는 트리 앞에서 셀카를 찍고 웃으며 즐거워했다.

트리 점등과 함께 베들레헴에는 축제 분위기가 돌아왔다. 거리 곳곳에도 화려한 조명 장식이 달렸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알리는 인내문도 눈에 띄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지 보석 디자이너 나디야 하즈분은 “트리가 돌아오고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축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올해 크리스마스가 평화롭다면 전 세계에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BBC에 말했다.

전쟁 기간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던 베들레헴에서 시 당국은 최근 휴전 합의를 계기로 축제

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 세계 순례객과 관광객도 한동안 발길이 끊겼던 베들레헴에 서서히 돌아오는 분위기다. 지난 2년간 대부분 비어 있던 지역 호텔도 예약이 늘고 있다.

마테르 카나와티 베들레헴 시장은 BBC에 “지난 2년은 크리스마스도 일자리도 없는 침묵 뿐이었다”며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이”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카나와티 시장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에 축제 재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누군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또 누군가는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기에 멈추거나 취소 되어서는 안 되므로 맛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ISS 도달한 첫 한국계 우주비행사 8일 귀환…245일간 임무 수행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우주에 나간 미국 항공 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지난 8일 귀환한다고 4일(현지시간) NASA가 밝혔다.

조니 김이 탑승한 귀환 우주선은 245일간의 우주 임무를 마치고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8일 오후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떠나 9일 카자흐스탄 초원 지대에 착륙할 예정이다.

조니 김을 포함한 우주비행사들의 귀환 과정과 우주정거장 지휘관 이양식은 NASA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돼 미국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이번 비행은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8년 만에 처음으로 맡게 된 우주 임무다.

/연합뉴스

## 日 “中전투기, 공해서 레이더로 자위대기 겨냥”

### 中함재기 J-15, 日F-15에 레이더 조사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7일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에 대한 레이더 조사 를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2분께부터 3분간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간헐적으로 했다.

/연합뉴스

**남도밥상**

을 지키는 사람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남도밥상은 지역 특산물과 전통 음식을 활용한 맛있는 음식입니다.

▶ 광주매일신문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푸른 자연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 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 예금주 -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